

# 코로나 재택근무에 이직하기 좋아졌다?

### 광주·전남 지난해 자발적 이직 1만5839명...전년비 1500명 늘어 비자발적 이직 5만5881명...전남 제조업 49.4% 급증 '4년내 최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스스로 직장을 떠나려는 자발적 이직이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1500명 넘게 늘었다.

비대면 면접과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휴가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근무 환경도 이 같은 이직 증가 현상에 한몫했다.

20일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자발적 이직자는 광주 7546명·전남 8293명 등 1만5839명으로, 전년(1만4295명)보다 10.8%(1544명) 증가했다.

광주 자발적 이직자는 전년 6745명보다 11.9%(801명) 늘었고, 전남은 7550명보다 9.8%(743명) 증가했다.

자발적 이직은 고용계약이 종료되거나 구조조정, 합병·해고 등에 따른 면직, 회사 경영상 휴직하

는 '비자발적 이직'과 반대되는 이직 유형을 말한다.

지난해 비자발적 이직자는 광주 2만215명·전남 3만5666명 등 5만5881명이 발생했다. 광주는 전년보다 4.1%(-856명) 줄고, 전남은 7.6%(2530명) 늘어난 수치다.

지난 한 해 동안 광주에서는 3월 이직자(3만8438명)가 가장 많았고, 전남은 12월(5만7029명)이 최다를 기록했다.

자발적 이직자 수가 가장 많은 달은 광주는 5월(8849명)인 반면, 전남은 7월(9452명)로 집계됐다.

비자발적 이직이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광주는 3월(2만5102명), 전남은 12월(4만6194명)이었다. 지난해 이직률은 광주 6.5%·전남 8.3%로, 전년

보다 각각 0.1%포인트 줄고 0.5%포인트 늘었다.

전남 이직률은 2019년 9.1%→2020년 7.8%→2021년 8.3%로 등으로, 조사를 한 3년 내내 17개 시도 최고를 나타냈다.

전남의 높은 이직률은 전국 최고 수준인 숙박·음식점업(10.3%)과 제조업(5.2%) 이직비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광주 이직률은 전국 평균(5.2%)을 웃돌았고 전남·세종·대전·전북에 이어 5번째로 높았다.

산업별로 보면 지난해 이직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건설업(광주 24.9%·전남 29.9%)이었다.

광주에서는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0.8%), 광업(10.3%), 숙박·음식점업(10.3%) 등이 '두 자릿수' 이직률을 나타냈다.

전남은 숙박·음식점업 이직률이 15.2%로 높은 편이었다.

전년보다 이직률이 크게 오른 업종은 광주는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6.3%포인트), 전남은 광업(2.6%포인트)이었다. 특히 전남 제조업 비자발적 이직자 수는 3663명으로 전년보다

49.4%(1212명)나 급증했으며, 최근 4년 내 최다를 기록했다.

광주에서는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비자발적 이직자가 79.0%(768명→1375명)나 늘었다.

한국청소년연구원이 광주·전라·제주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더 나은 보수보다는 안정성과 개인발전을 위해 이직을 원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이직을 원한다는 응답률은 52.3%(2017년)→49.2%(2018년)→42.3%(2019년)→37.7%(2020년) 등 해마다 줄고 있다.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라는 답변은 지난 2019년 6%에서 이듬해 17.0%로, 1년 새 11.0%포인트 증가했다.

이직 희망 사유로 '개인발전·승진'을 꼽은 경우도 4.8%(2018년)→7.9%(2019년)→10.1%(2020년) 등으로 증가 추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수천 만원 보이콧 피싱 막은 NH농협은행 상무금융센터

NH농협은행 상무금융센터는 최근 수천 만원 상당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고 20일 밝혔다.

상무금융센터 직원은 지난 16일 오후 수천 만원을 현금 인출하려는 60대 고객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서 범피를 막았다.

동시에 경찰에 혐의점을 신고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피의자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신용카드가 발급됐고, 이는 금융감독원 전산망에 불법 자금으로 확인된다"며 현금 인출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제훈 상무금융센터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속에서 이를 악용한 금융사기 피해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며 "주기적인 직원 교육과 피해 사례를 공유해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삼성전자 '입사하고 싶은 기업' 1위 탈환

### 20.7% 차지하며 카카오 따돌려...3.8% 한전, 6위로 2단계 하락

'입사하고 싶은 기업' 순위에서 한국전력이 지난해 4위에서 올해 6위로 두 계단 내려갔다.

지난해 1위 자리를 카카오에 내줬던 삼성전자는 다시 정상을 탈환했지만 취업 선호 기업인 '네카라쿠배당도' (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당근마켓·토스)의 강세는 여전했다.

이 같은 내용은 취업정보포털 '사람인'이 지난 1월18일부터 2월1일까지 성인 2264명을 대상으로 벌인 '입사하고 싶은 대기업' 설문조사 결과에 담겼다.

올해 1위는 삼성전자가 20.7%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카카오(12.6%)와 네이버(8.2%)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으며, 현대자동차(6.2%) CJ제일

제당(4.3%), 한국전력(3.8%), LG전자(3.4%), 우아한형제들(3%), 한국가스공사(3%), SK하이닉스(3%)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1위는 카카오(16.9%)였고, 삼성전자는 2위(11.7%)였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전력은 네이버(6.1%)에 이어 4위(4.9%)를 기록했다.

올해 입사 희망 동향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삼성전자(19.8%), 카카오(16.3%), 네이버(11.1%), CJ제일제당(6.1%), 우아한형제들(3.9%), LG전자(3.7%), 한전(3.5%), 토스(2.6%), 당근마켓(2.4%), 한국토지주택공사(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IT 기업이 상위권에 포함된 것이다.

반면 남성 응답자들은 삼성전자(21.7%), 현대자동차(10.3%), 카카오(8.6%), 네이버(5%), 한국가스공사(4.4%), 한전(4.1%), SK하이닉스(3.9%), 한국토지주택공사(3.5%), LG전자(3.1%), 포스코(3%) 등 대표적인 대기업과 공기업을 선호했다.

해당 기업을 선택한 이유로는 높은 연봉(25.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사내복지 및 복리후생(19.6%) ▲회사 비전, 성장 가능성(17.8%) ▲정보보장 등 안정성(14.3%) ▲대외적 평판 등 기업 이미지(5.4%) ▲자기계발 등 커리어 향상 지원(4.8%) 등의 이유로 들었다.

사람인 관계자는 "한전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을 선택한 응답자들은 '정보보장 등 안정성'을 선택의 이유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왼쪽)이 지난 18일 '북구 디딤돌 특례보증대출'에 5000만원을 특별 출연하며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 광주은행, 북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시행

### 업체당 최대 2000만원

광주은행과 광주시 북구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 '북구 디딤돌 특례보증대출'을 시행한다.

지난 18일 송중욱 광주은행행장과 문인 북구 청장, 광주신용보증재단은 북구청에서 '디딤돌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특례보증은 광주 북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최장 5년 동안 대출받을 수 있다. 최대 0.3%포인트 대출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으며, 대출 취급 뒤 2년 동안은 북구가 2%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광주은행은 이번 특례보증에 5000만원을 별도 출연했다. 이로 인해 '북구 디딤돌 특례보증대출' 규모는 총 9억7500만원으로 늘어났다.

광주은행은 북구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에 지난 2019년부터 총 1억3000만원을 특별 출연했다. 현재까지 보증대출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455개(총 76억원)이다.

송 행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된 경기침체와 영업시간 제한 등의 피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고배 풀린 휘발유값

### 광주·전남 한 달 새 5% 올라

한 달 새 광주·전남 휘발유 가격이 5% 넘게 올랐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주유소 평균 보통 휘발유 가격은 1당 광주 1721.96원·전남 1722.21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광주는 5.7%(93.52원), 전남은 5.2%(84.61원) 오른 가격이다. 지난달과 비교해 휘발유 평균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전북으로, 6.9% 인상됐다. 인천(6.7%)과 대구·경북(각 6.6%) 등 순으로 인상이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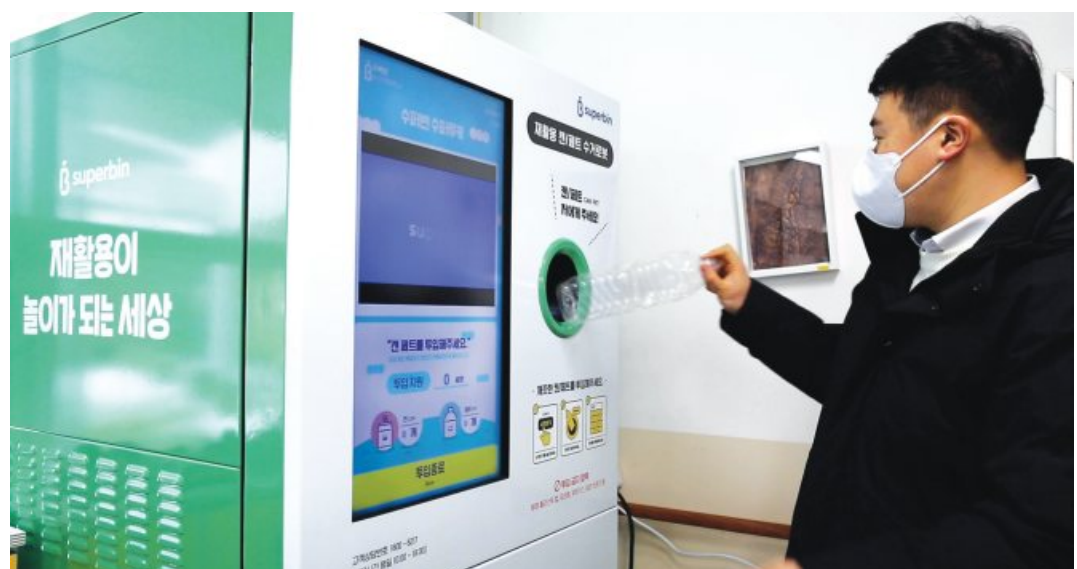
정부는 지난 18일 불가자관회의를 열고 국제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석유류의 경우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코로나19 회복과정에서 수요 압력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당초 예상보다 국내외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져 2월에도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초 유류세 인하 조치는 4월 말 종료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원유 비상계획을 점검하고 가스 추가구매·물량교환 등을 통해 수급 불안에 대해서도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백희준 기자 bhj@



나주 이화학교에 설치된 '순환자원 회수 로봇' 시범운영 모습. <KCA 제공>

## 빛가람혁신도시 기관들, 순환자원교육 앞장

### KCA, 나주 이화학교·함평 영화학교에 '수퍼루키 서비스' 시범 도입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 4곳이 힘을 합쳐 전남 특수학교 2곳에서 순환자원교육을 벌이고 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전국 최초로 특수학교 대상 순환자원교육 '수퍼루키 서비스'를 나주 이화학교와 함평 영화학교에 시범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진흥원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4개 기관은 지난 16일 이들 학교에 순환자원 회수로봇을 설치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은 순환자원을 회수·선별·소재화하는 소셜벤처기업 '수퍼빈'과 협력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수퍼루키 서비스'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재활

용 방법이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 사업이다.

회수로봇에 다 쓴 캔과 페트병을 넣으면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 분류한 뒤 참여학생에게 '씨앗' 혜택을 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전기관들은 대면·비대면 방법을 혼용해 환경교육을 펼칠 계획이다.

앞으로 학교 인근에서 쓰레기를 줍는 '쓰러린'과 관련된 영상제 등도 진행한다.

정한근 진흥원장은 "KCA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기후위기 등 환경이슈에 대응해 지역사회와 함께 자원순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로또복권

(제1003회)

| 당첨번호 |                   |               |    |    |    | 2등<br>보너스숫자 |      |
|------|-------------------|---------------|----|----|----|-------------|------|
| 1    | 4                 | 29            | 39 | 43 | 45 | 31          |      |
| 등위   |                   |               |    |    |    | 당첨금(원)      | 당첨자수 |
| 1    | 6개 숫자일치           | 1,811,116,822 |    |    |    | 14          |      |
| 2    | 5개 숫자+<br>보너스숫자일치 | 64,029,383    |    |    |    | 66          |      |
| 3    | 5개 숫자일치           | 1,595,297     |    |    |    | 2,649       |      |
| 4    | 4개 숫자일치           | 50,000        |    |    |    | 133,896     |      |
| 5    | 3개 숫자일치           | 5,000         |    |    |    | 2,247,475   |      |

## 비트코인 3%대 하락하며 4740만원대 '우크라 충격' 지속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갈등이 고조되며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4740만원대로 하락했다.

20일 오후 4시 30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4746만8000원으로, 24시간 전보다 3.39% 내렸다.

같은 시간 빗썸에서도 비트코인은 3.34% 내린 4741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에서 비트코인은 3만8800달러를 오르내리며 4만달러선을 내어줬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은 24시간보다 27% 가량 줄었다.

/연합뉴스

계좌 수 증가세는 급속도로 빨라졌다.

계좌 수는 3000만개 돌파 1년 만인 지난해 3월 4000만개를 넘었고, 이어 불과 5개월 만인 8월에 5000만개를 넘어며 그야말로 '전 국민 주식투자 시대'를 열었다.

특히 공모주 청약 인기가 신규 투자자 유입에 한몫했다. 증시 활황을 타고 2020년 여름 SK바이오팜을 시작으로 대어급 기업들은 잇따라 기업공개(IPO)에 나섰다.

지난해 6월 공모주 청약이 금지되기 전까지는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이 가능했다. 이에 증권사마다 계좌를 만들어 청약에 넣는 경우가 많았다.

계좌를 개설하려고 증권사 지점 앞에서 '새벽 줄서기'를 하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제 중복 청약은 막혔지만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열어 두고 낮은 경쟁률을 노리는 '눈치작전'이 치열해져 여전히 대형 IPO를 앞두고 계좌 개설이 잇따른다.

새해 들어 'IPO 초대대' LG에너지솔루션이 청약 받은 1월에 주주 거래 활동 계좌 수가 경증 뒤편었다.

계좌 수는 지난해 말 5551만4906개에서 1월 말 5918만1308개로 한 달 동안에만 366만여 개 급증했다.

/연합뉴스